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 CATI & ARS

---

제66차 CATI조사

제81차 ARS조사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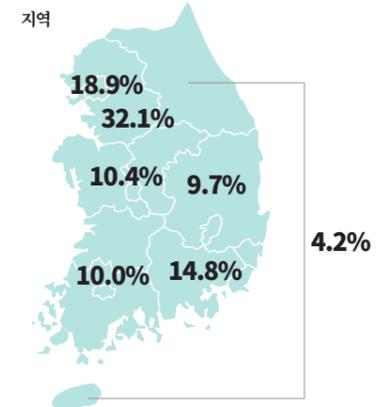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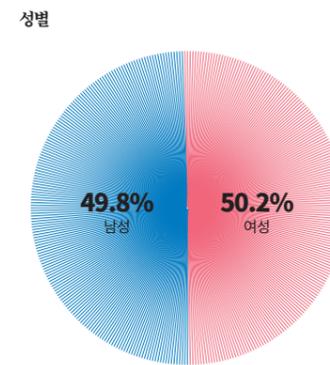
## CATI & ARS



### CATI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3.2% [총 통화시도 7,590명]
조사기간	2024년 5월 10일 ~ 5월 1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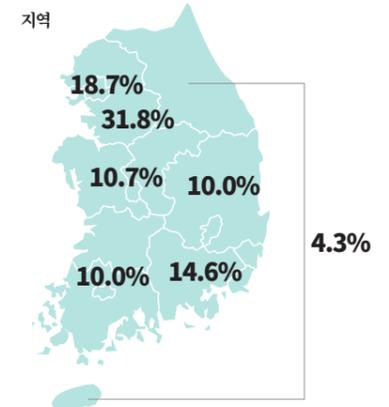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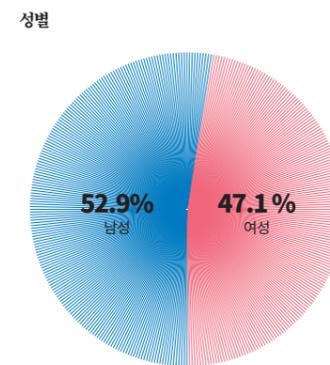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남성	500	49.8	497	49.5	0.99
연령	여성	504	50.2	507	50.5	1.01
	18-29세	160	15.9	159	15.8	0.99
	30대	151	15.0	149	14.8	0.99
	40대	180	17.9	178	17.7	0.99
	50대	195	19.4	197	19.6	1.01
	60대	172	17.1	175	17.4	1.02
	70세 이상	146	14.5	146	14.5	1.00
지역	서울	190	18.9	188	18.7	0.99
	인천경기	322	32.1	322	32.1	1.00
	대전세종충청	104	10.4	107	10.7	1.03
	광주전라	100	10.0	98	9.8	0.98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부산울산경남	149	14.8	149	14.8	1.00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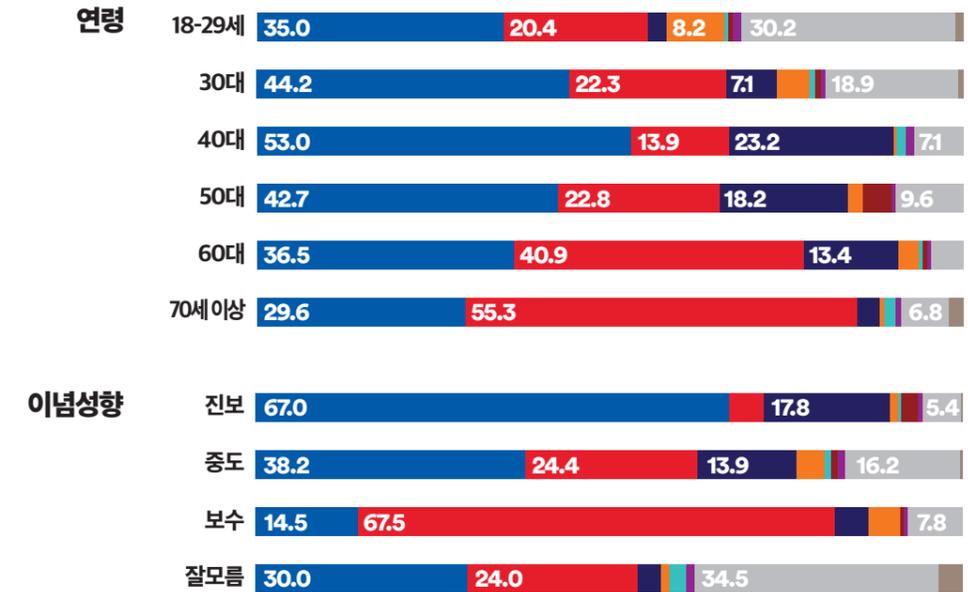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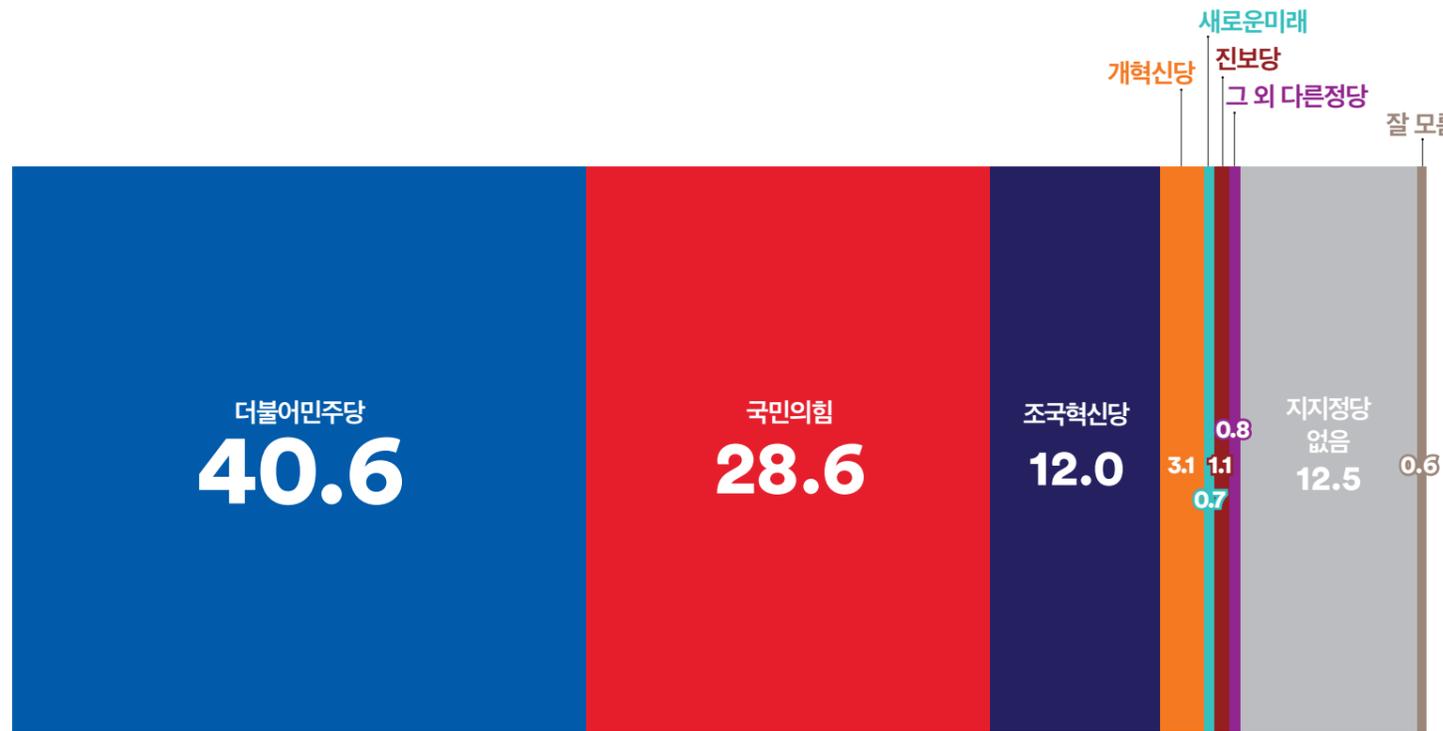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5,623명]
조사기간	2024년 5월 10일 ~ 5월 1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남성	531	52.9	497	49.5	0.94
연령	여성	473	47.1	507	50.5	1.07
	18-29세	111	11.1	159	15.8	1.43
	30대	140	13.9	149	14.8	1.06
	40대	192	19.1	178	17.7	0.93
	50대	215	21.4	197	19.6	0.92
	60대	189	18.8	175	17.4	0.93
	70세 이상	157	15.6	146	14.5	0.93
지역	서울	188	18.7	188	18.7	1.00
	인천경기	319	31.8	322	32.1	1.01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7	10.7	1.00
	광주전라	100	10.0	98	9.8	0.98
	대구경북	100	10.0	98	9.8	0.98
	부산울산경남	147	14.6	149	14.8	1.01
	강원제주	43	4.3	42	4.2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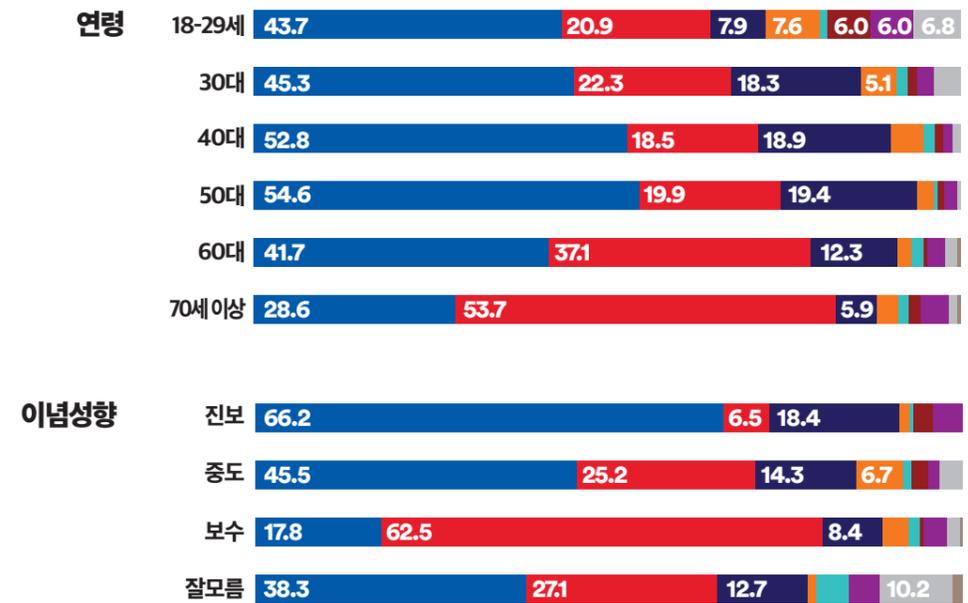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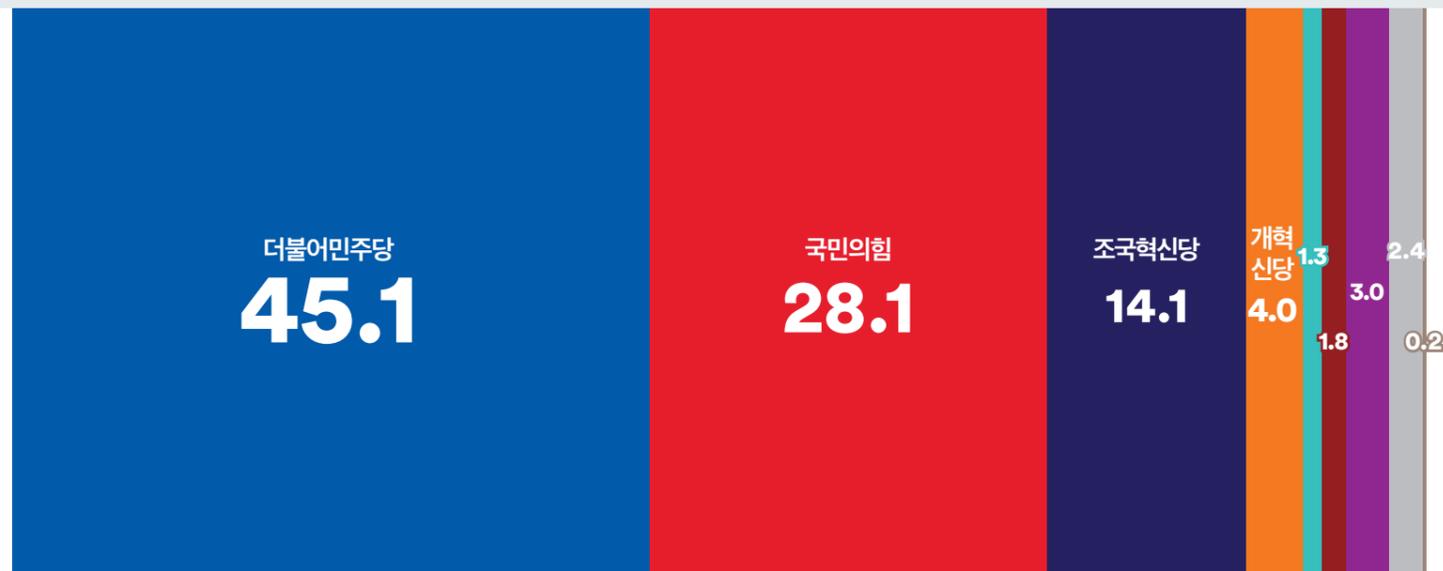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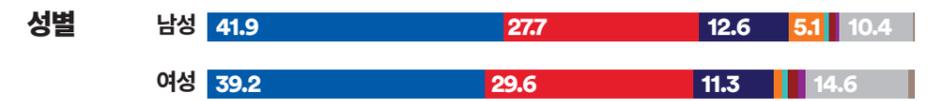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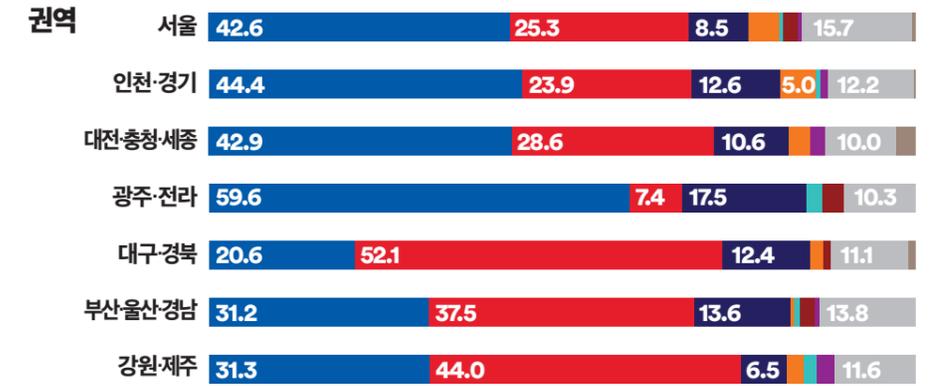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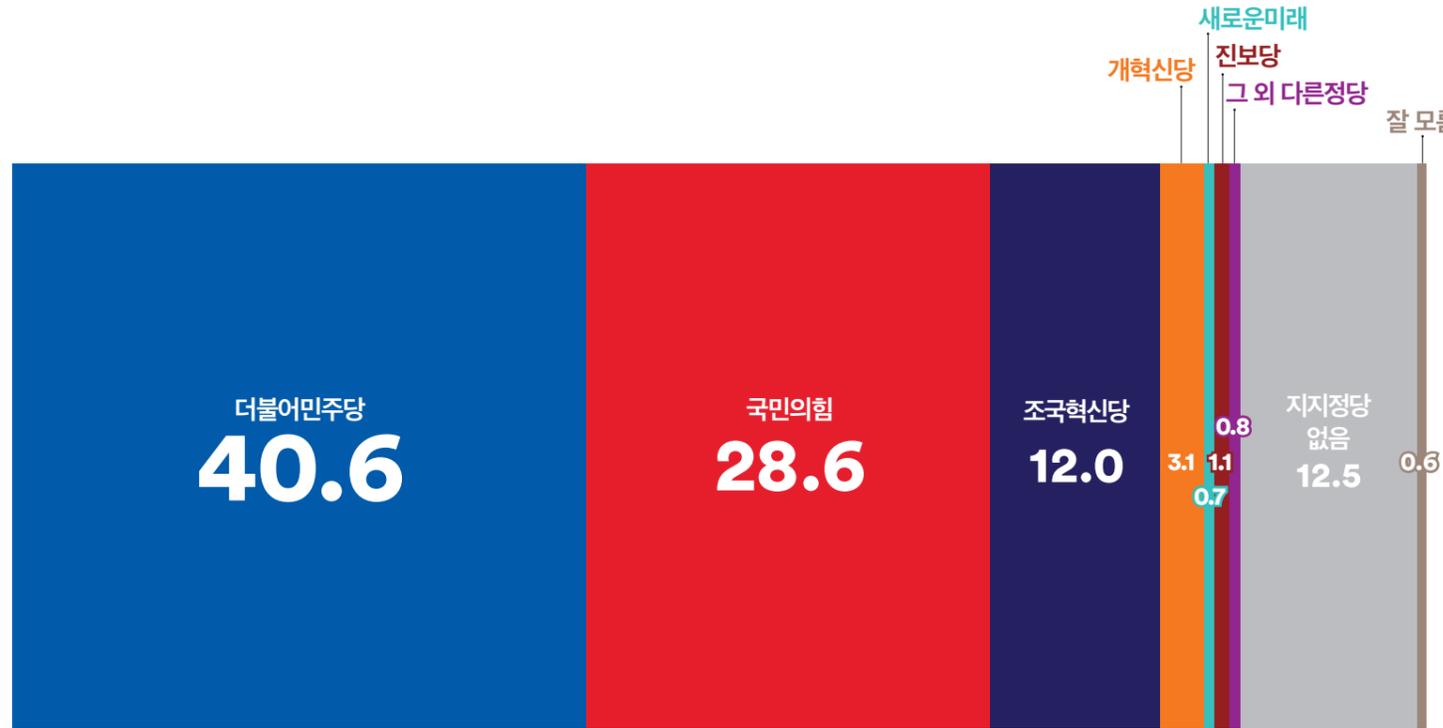


65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0%p 상승, '국민의힘' 1.1%p 하락, '조국혁신당' 1.1%p 하락  
 80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2.8%p 하락, '조국혁신당' 0.1%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2.0%p, ARS 17.0%p(지난주: CATI 9.9%p, ARS 12.4%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4.0%p, ARS 31.1%p(지난주: CATI 23.0%p, ARS 26.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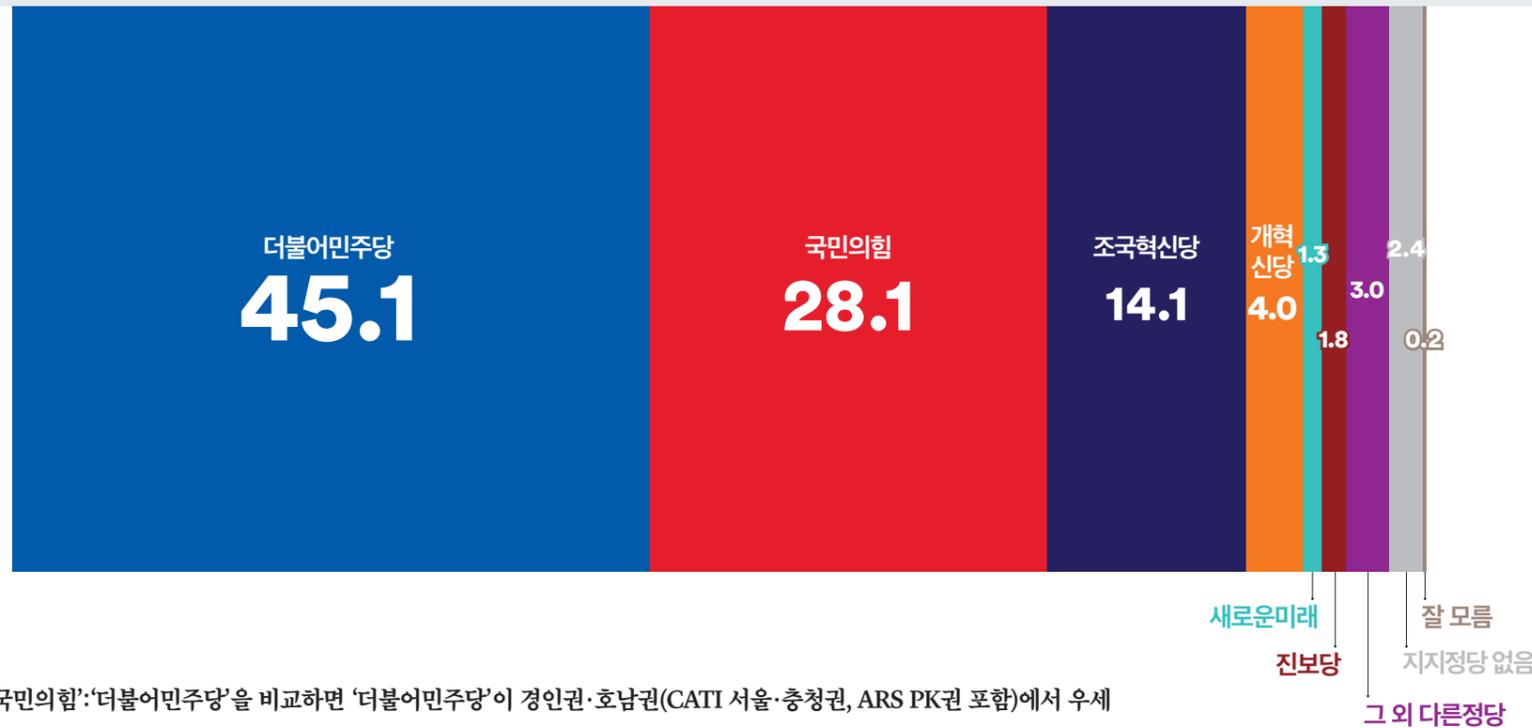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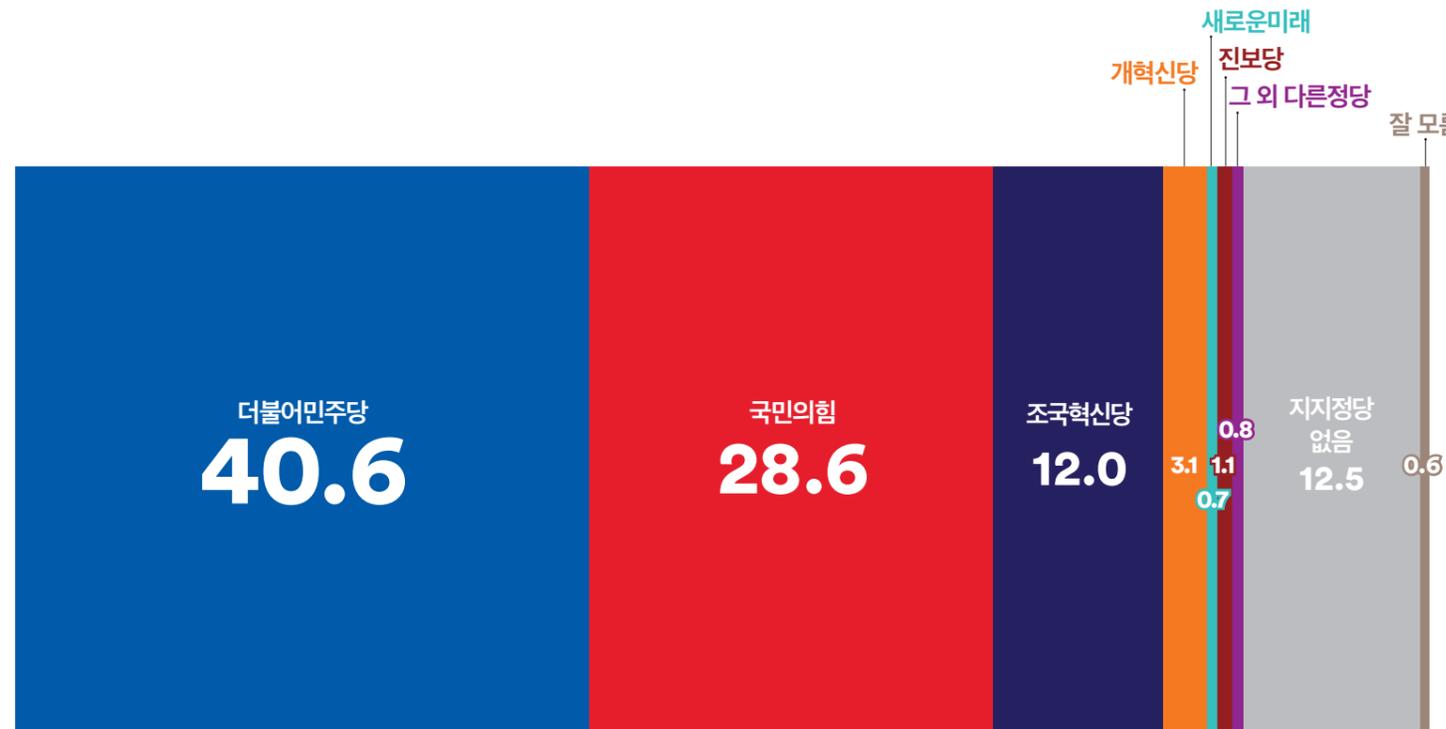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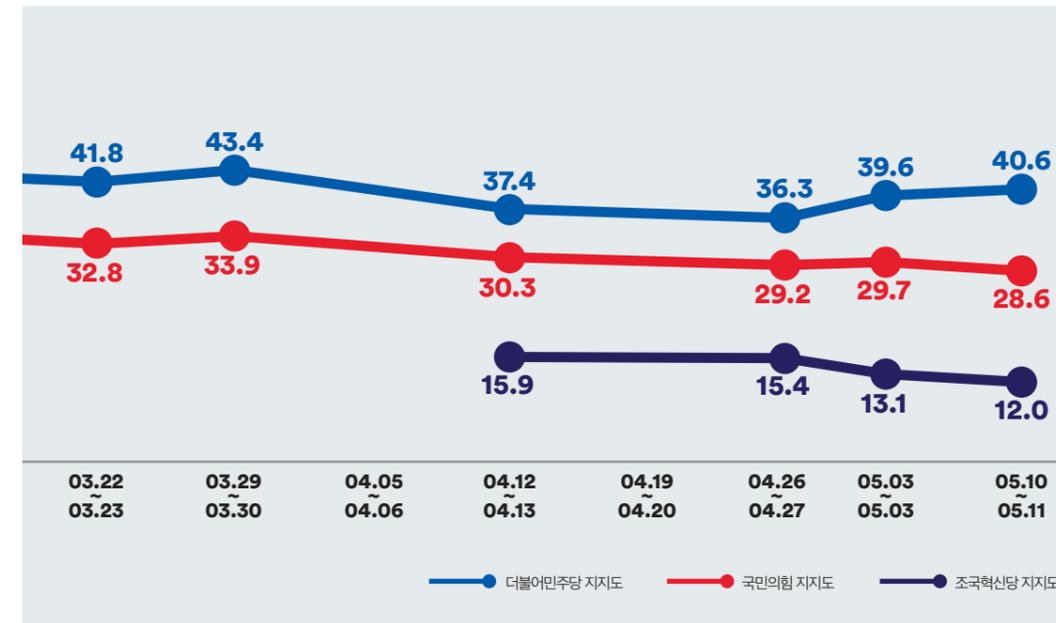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호남권(CATI 서울·충청권, ARS PK권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범야권 세력이 수도권·충청권·호남권(ARS PK권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은 지난 두 조사와 비교하여 서울, 충청권 지지율 하락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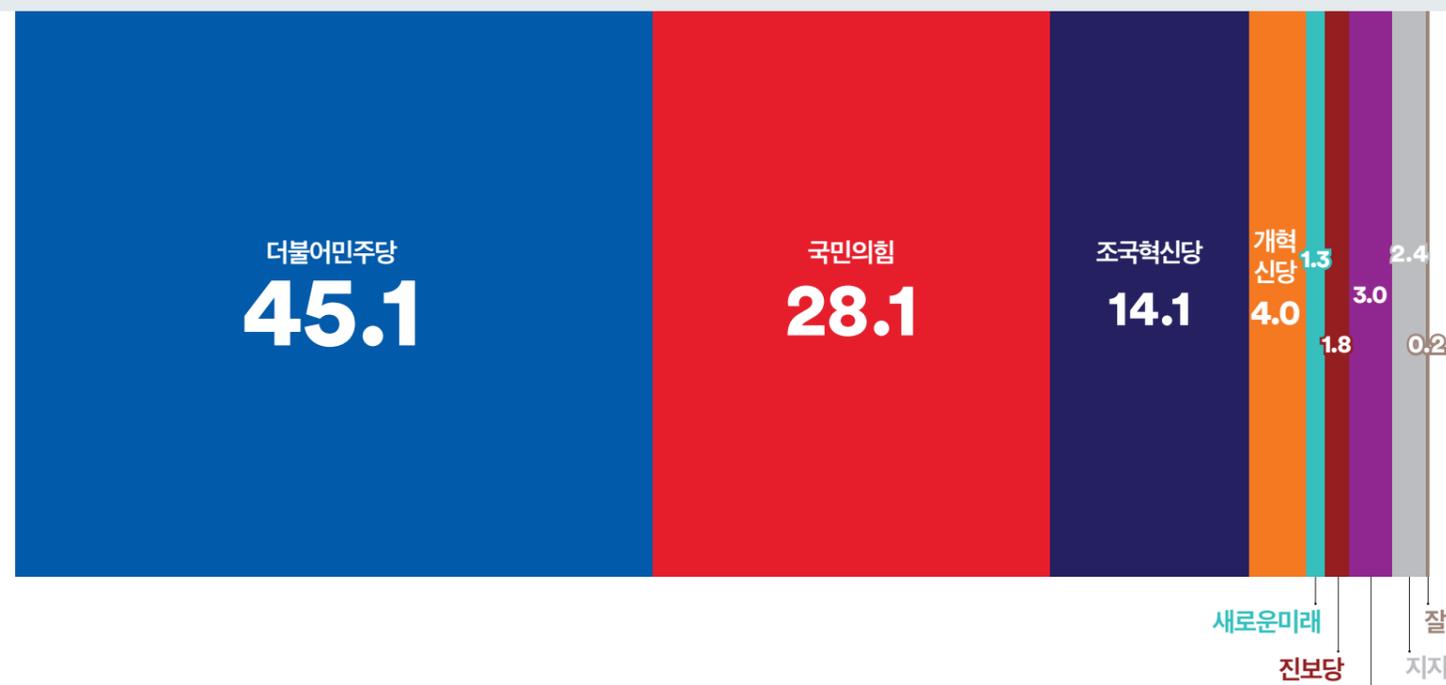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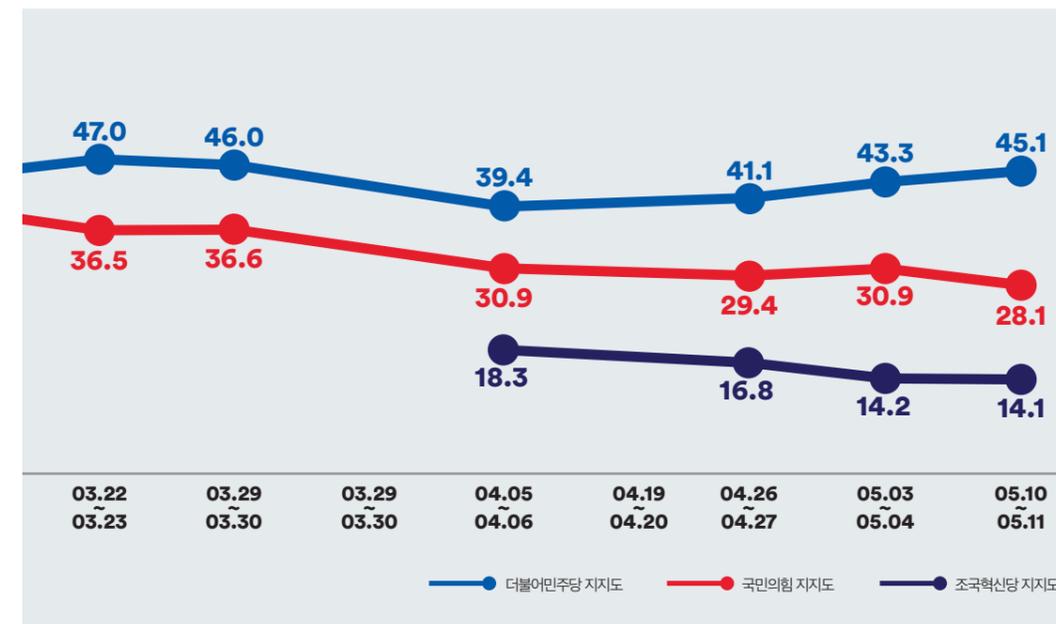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38.2%, '국민의힘' 24.4%, '조국혁신당' 13.9%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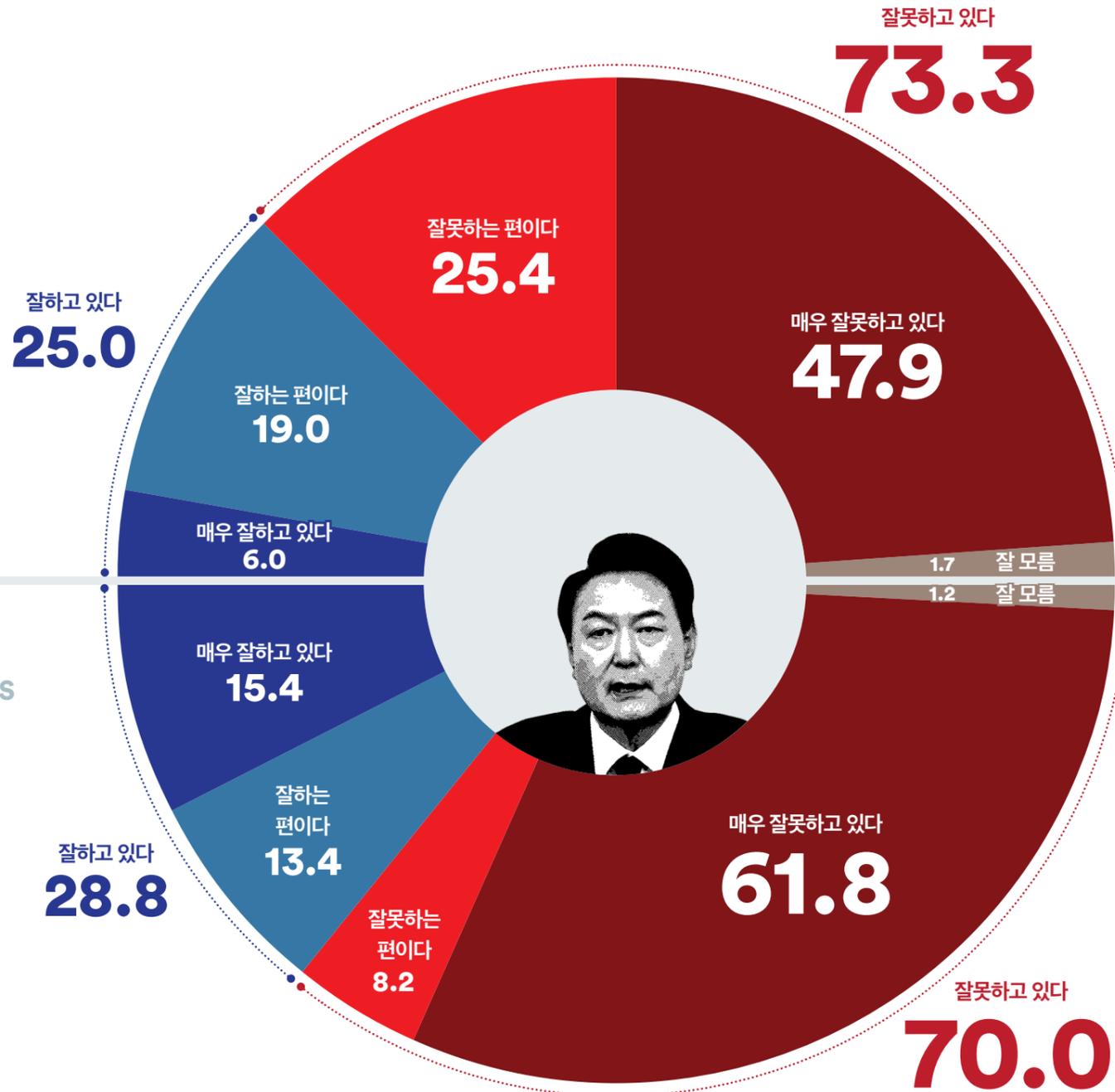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25.2%, '조국혁신당' 14.3%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7.7%p(65차: 33.2%p), ARS 34.6%p(80차: 23.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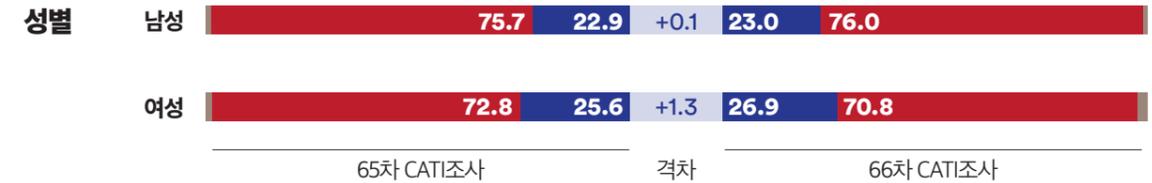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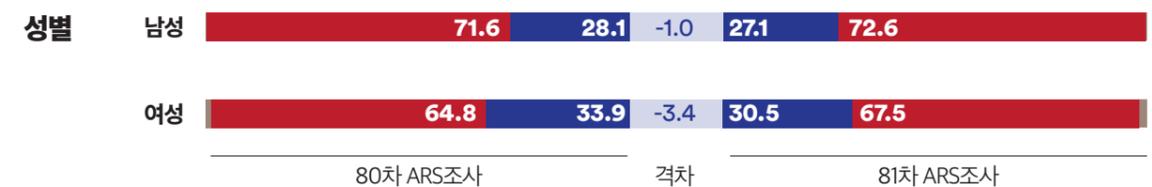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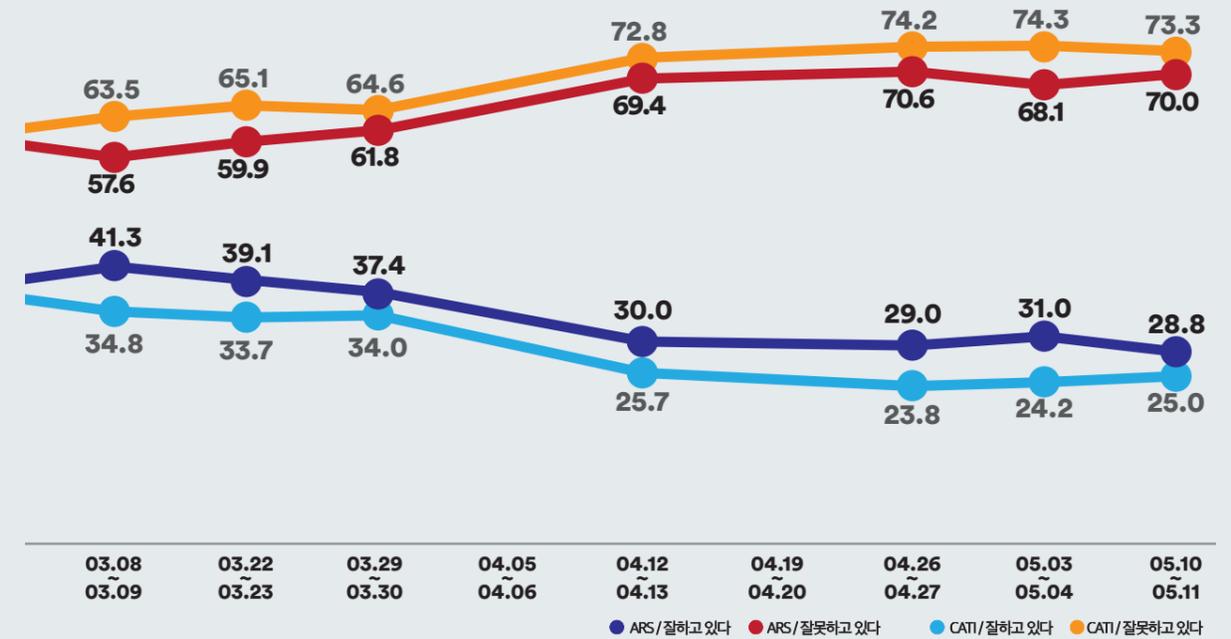
CATI



지난 65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8%p 상승, '부정' 평가 1.0%p 하락(격차 48.3%p)  
 지난 80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2.2%p 하락, '부정' 평가 1.9%p 상승(격차 41.2%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6.1%p(지난 조사: 65.9%p), ARS 48.6%p(지난 조사: 44.3%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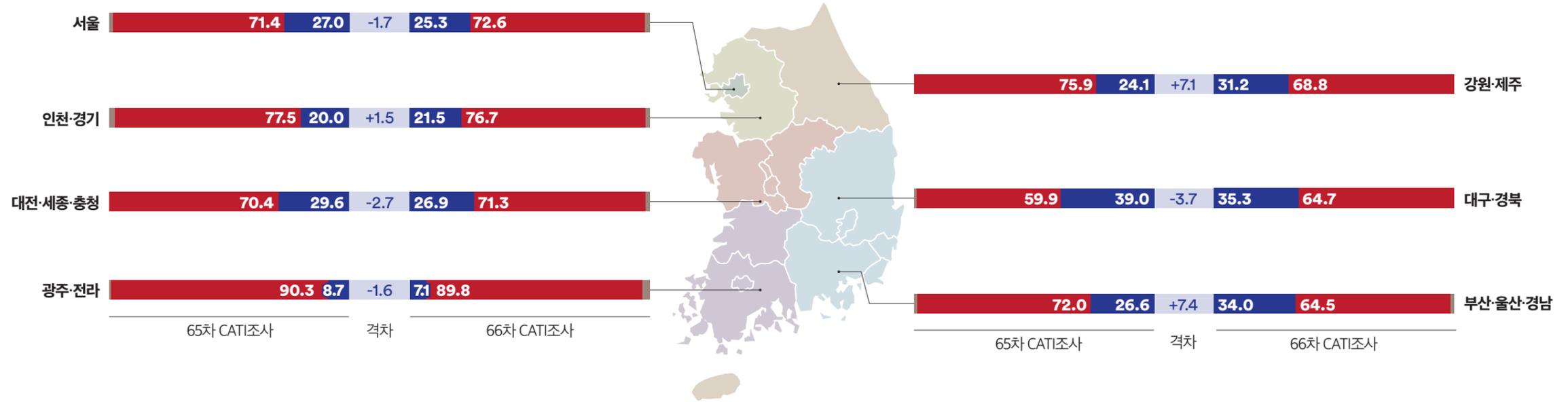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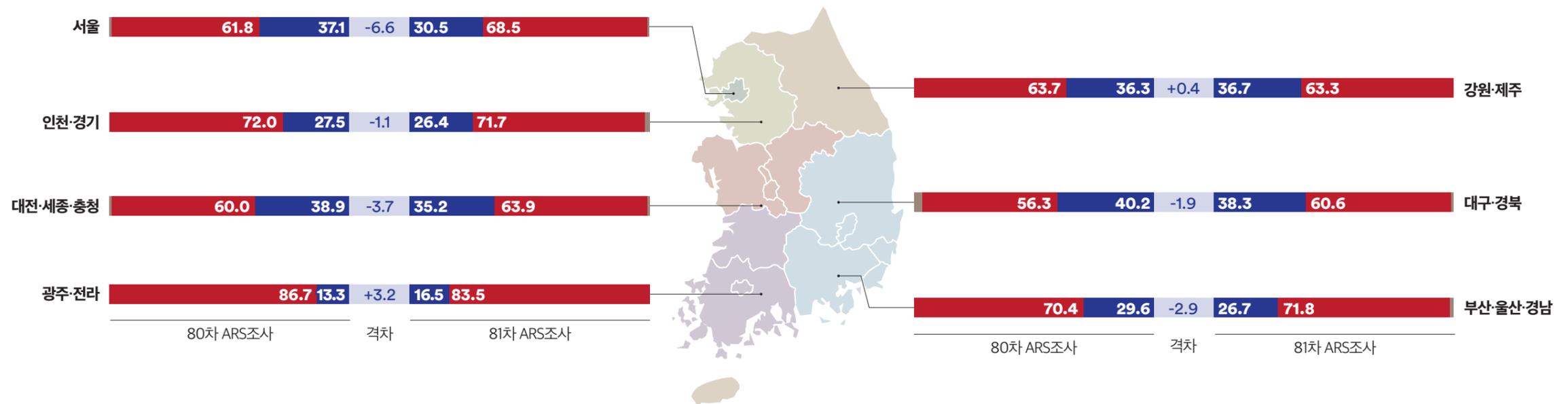
CATI

권역별



ARS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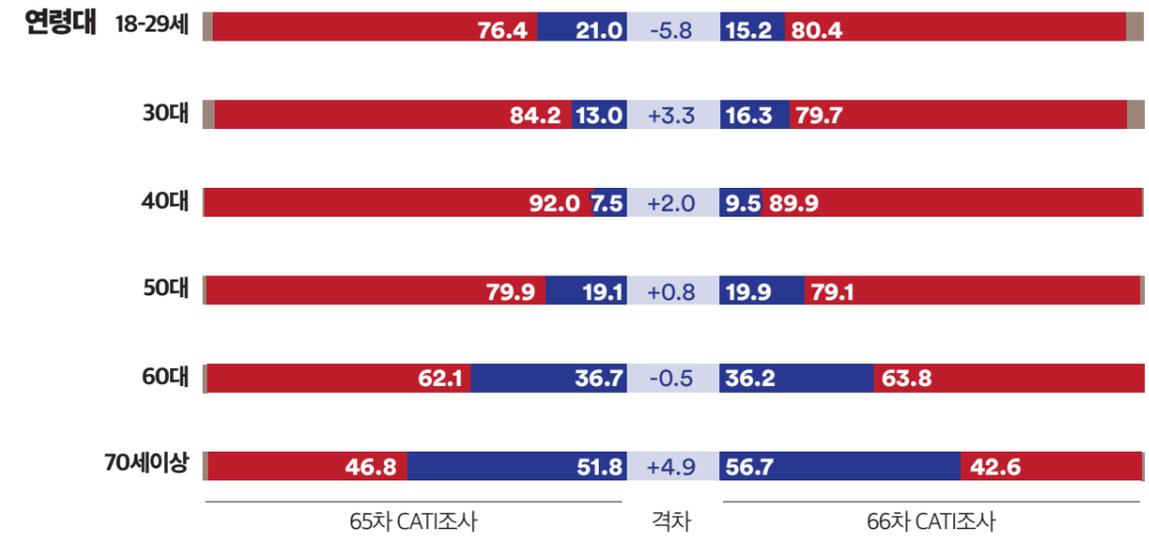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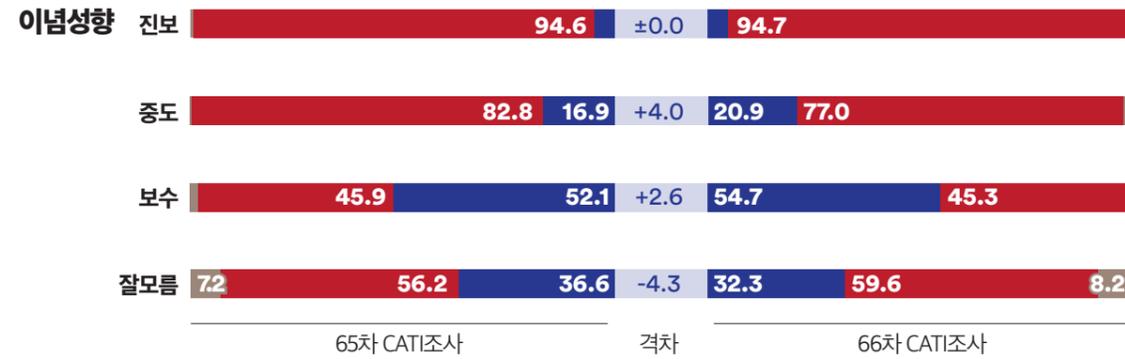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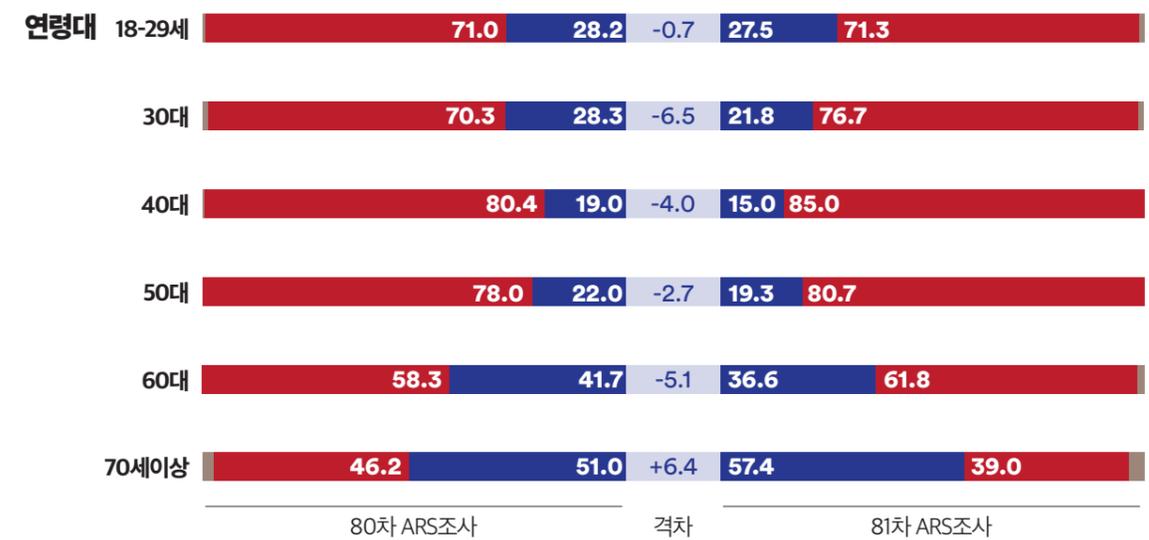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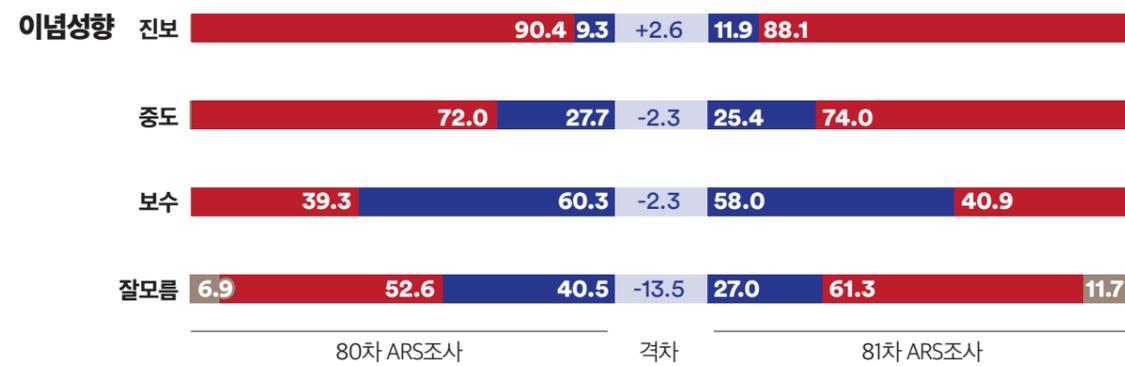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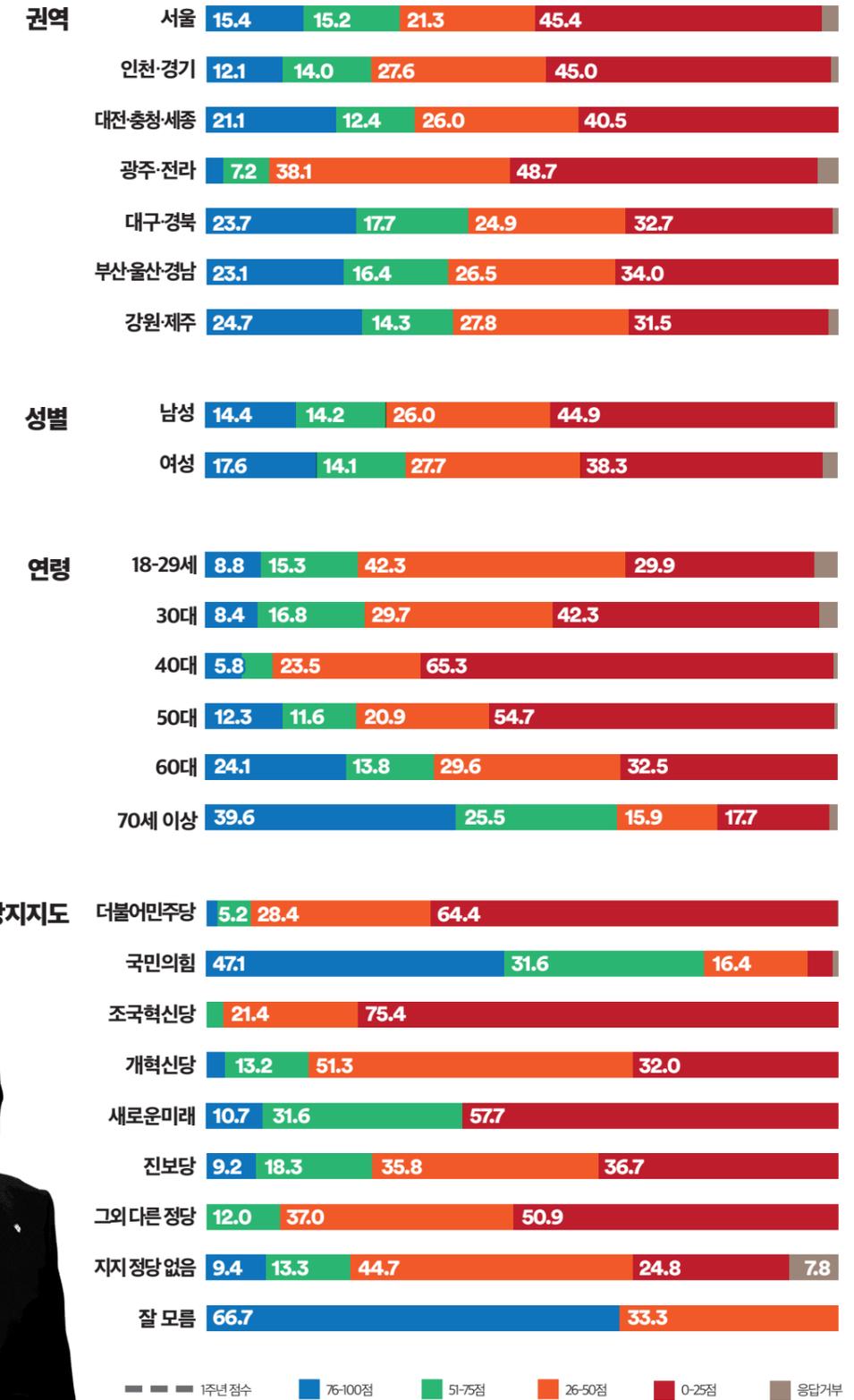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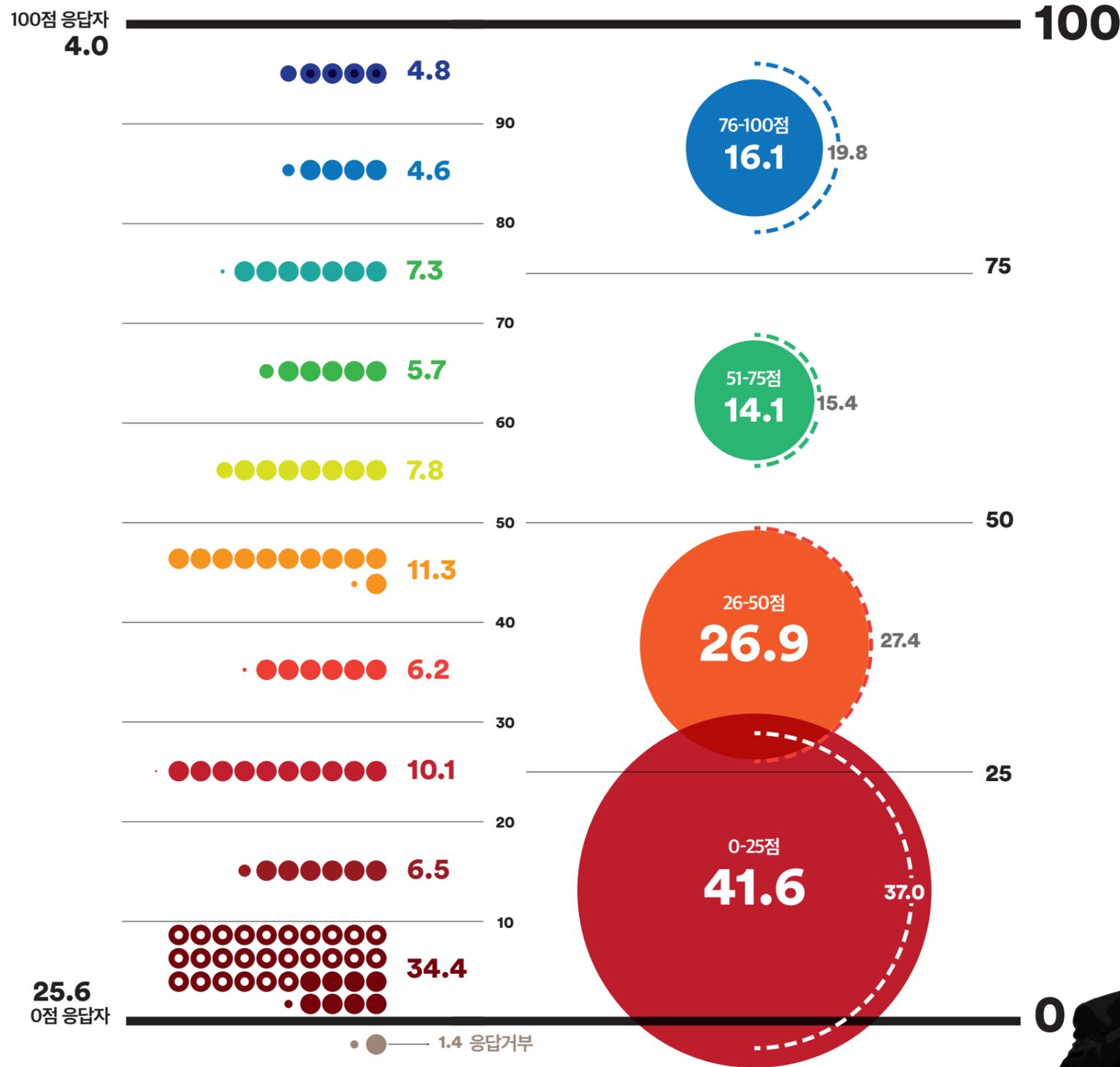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평가(1주년 비교)

Q. 5월 10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확인해본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인 '0점'이라고 응답(25.6%), '100점' 응답은 4.0%에 불과  
 '0점' 응답은 호남 32.9%, 서울 30.7%, 경인 24.5%에서 높았고, 40대·50대에서도 높게 나타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50점' 이하 응답이 90%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1점' 이상 응답이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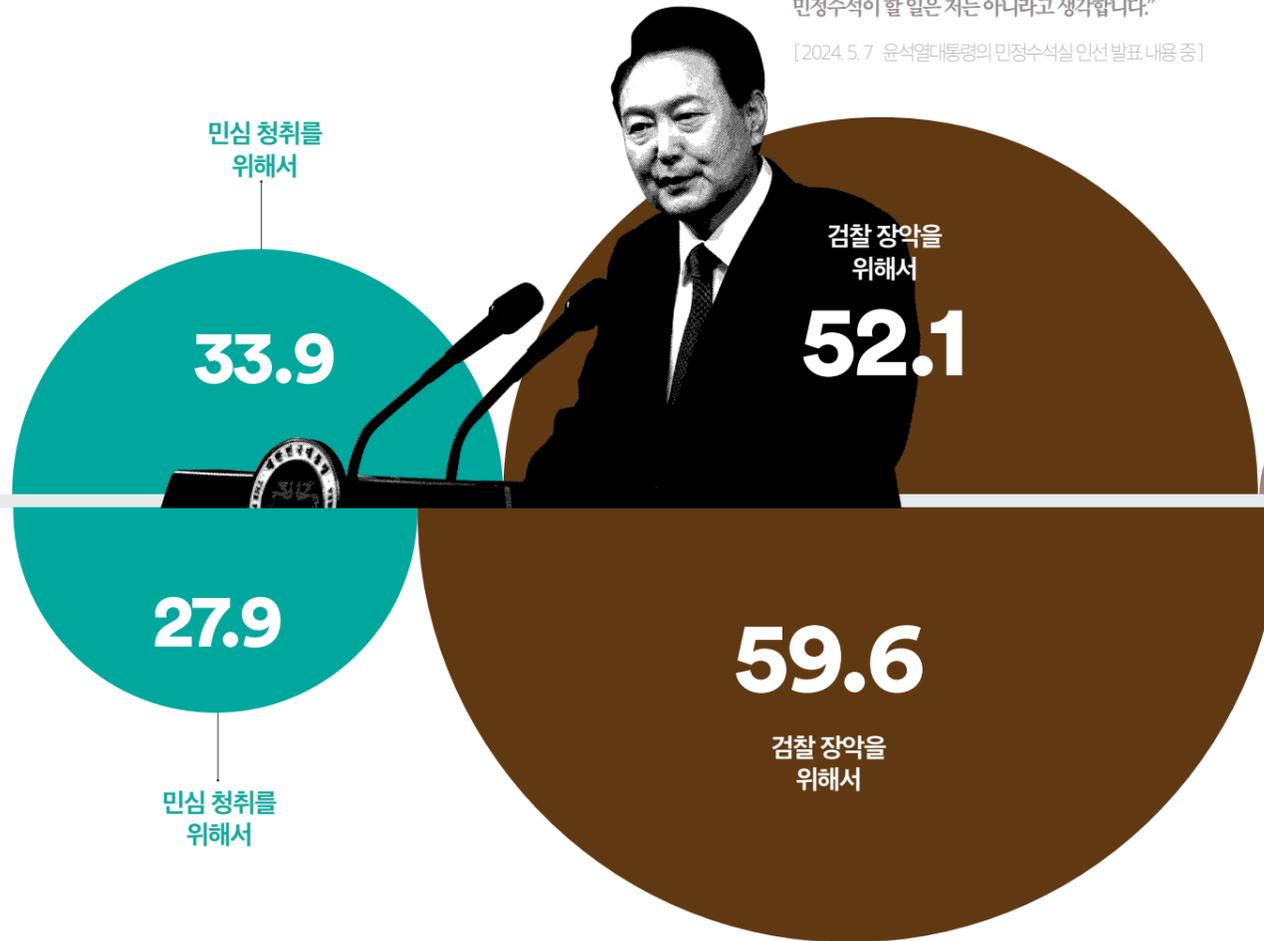
Q.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되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CATI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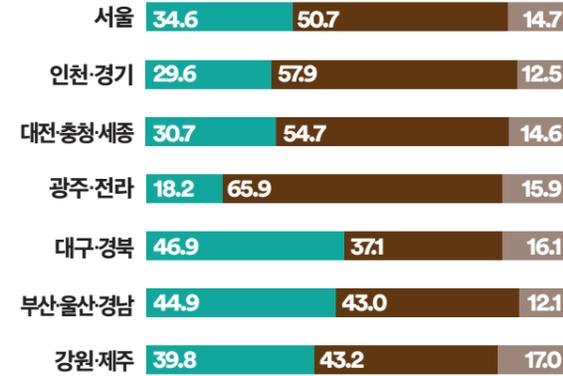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4.5.7 윤석열대통령의 민정수석실 안선 발표 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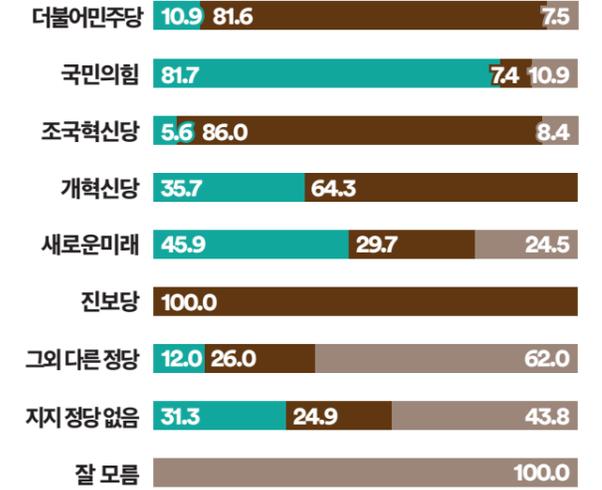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두 조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검찰 장악을 위해서'라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18.2%p, ARS 31.7%p) 수도권 및 충청권·호남권(ARS PK권 포함), 30-50대(CATI 18-29세·60대 포함)에서는 '검찰 장악을 위해서'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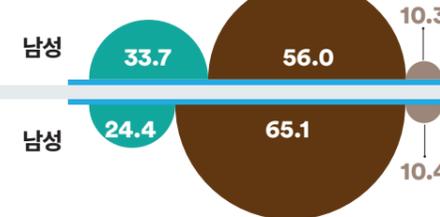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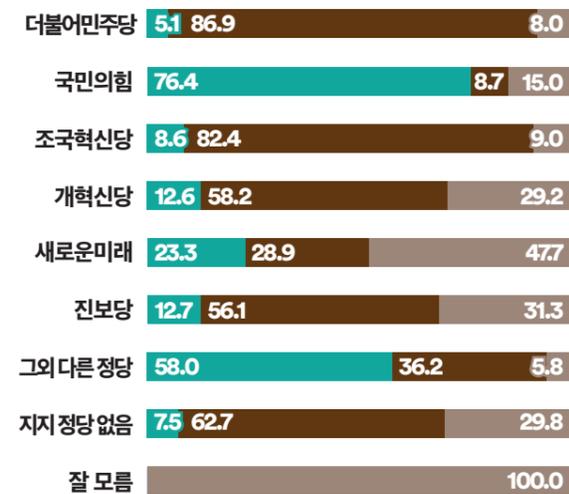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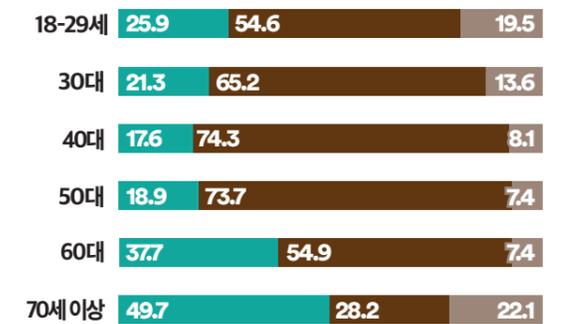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연령



민심 청취를 위해서    검찰 장악을 위해서    잘 모름

Q.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CATI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릴 것”  
 [2024. 5. 2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주례회의 내용 중]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5. 7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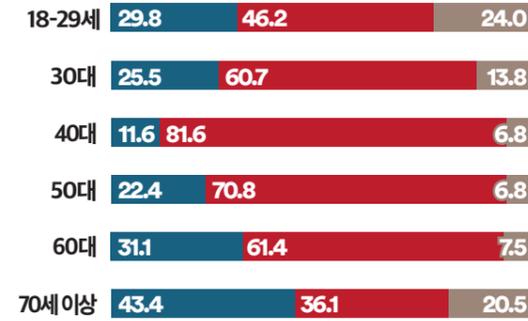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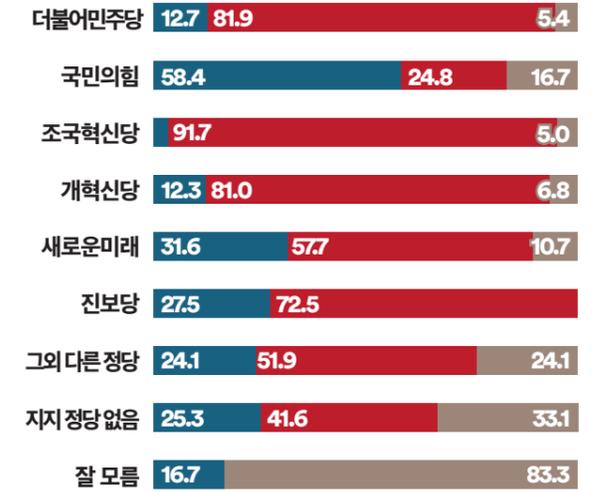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저지를 위한 몰타기'라 응답(응답간 격차: CATI 33.9%p, ARS 41.4%p)  
 60대 이하 연령층과 모든 권역에서 '특검 저지를 위한 몰타기'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중도층에서는 '특검 저지를 위한 몰타기'란 응답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특검 저지를 위한 몰타기'란 응답이 소폭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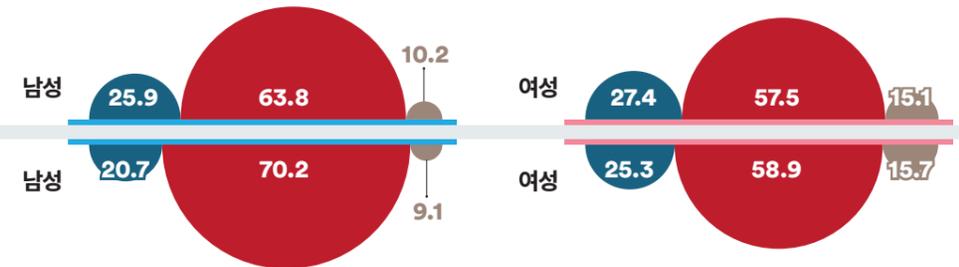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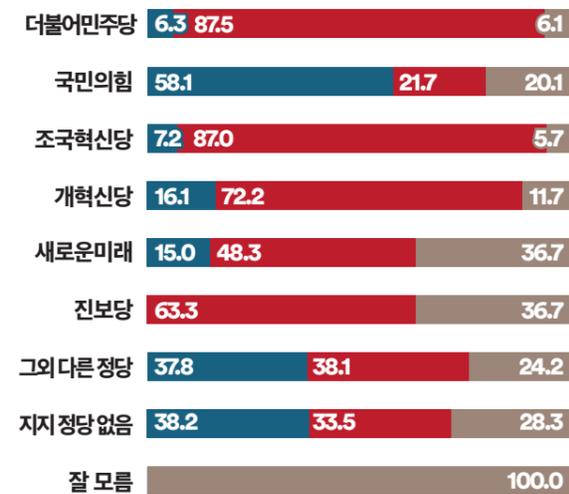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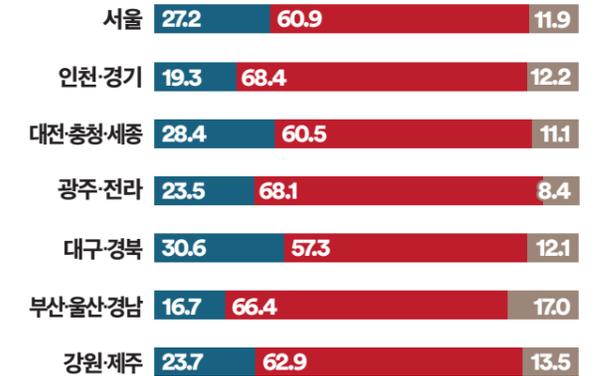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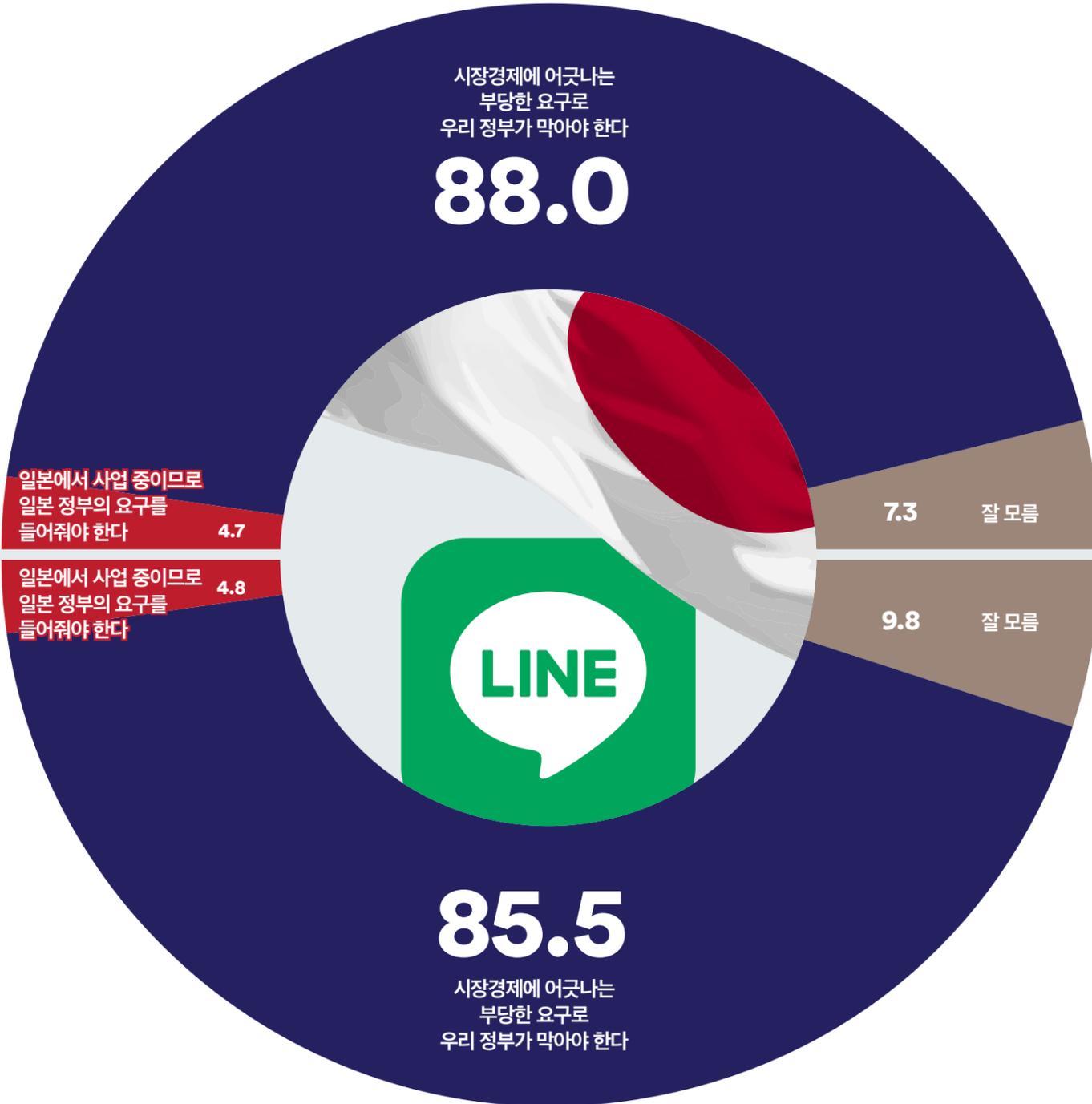
■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결단 ■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몰타기 ■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라인 사태 관련 우리 정부 대응

Q.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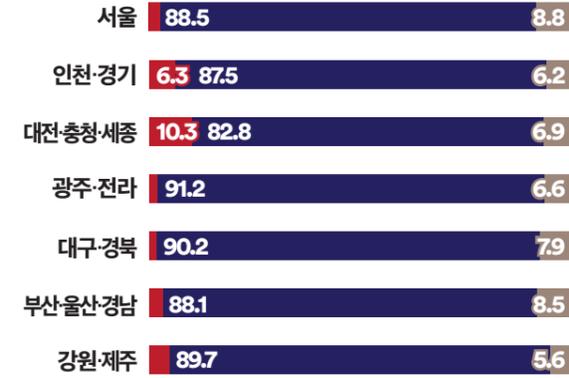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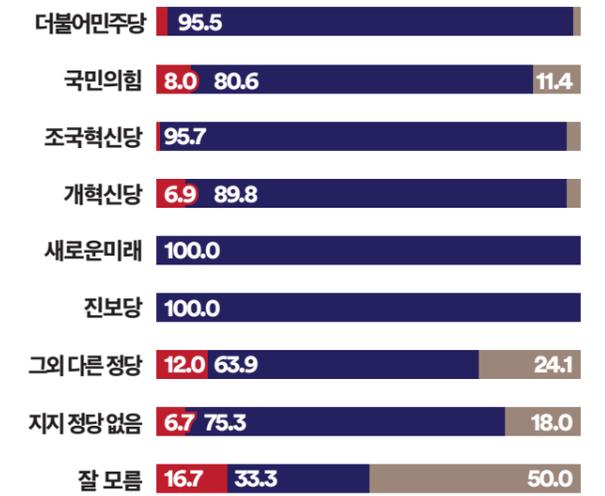
ARS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를 보임(응답간 격차: CATI 83.3%p, ARS 80.7%p)  
성by연령대 변수를 포함해 모든 권역·연령대·성별·지지정당·이념층에서 '우리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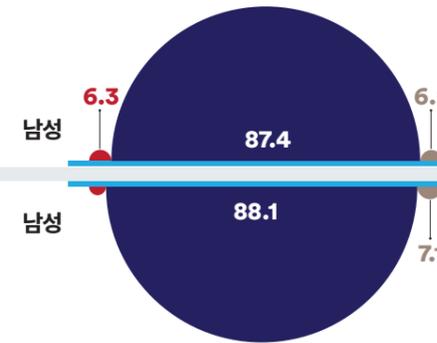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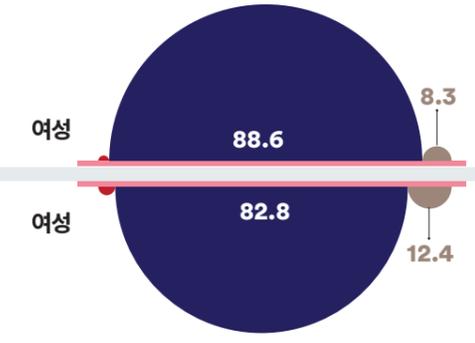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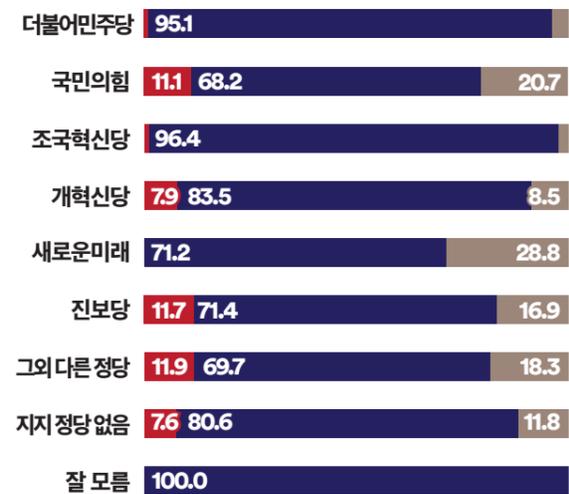
성별



성별



정당지지도



연령



일본정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red), 우리정부가 막아야 한다 (blue), 잘 모름 (grey)



###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시사 적절성

Q.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특검은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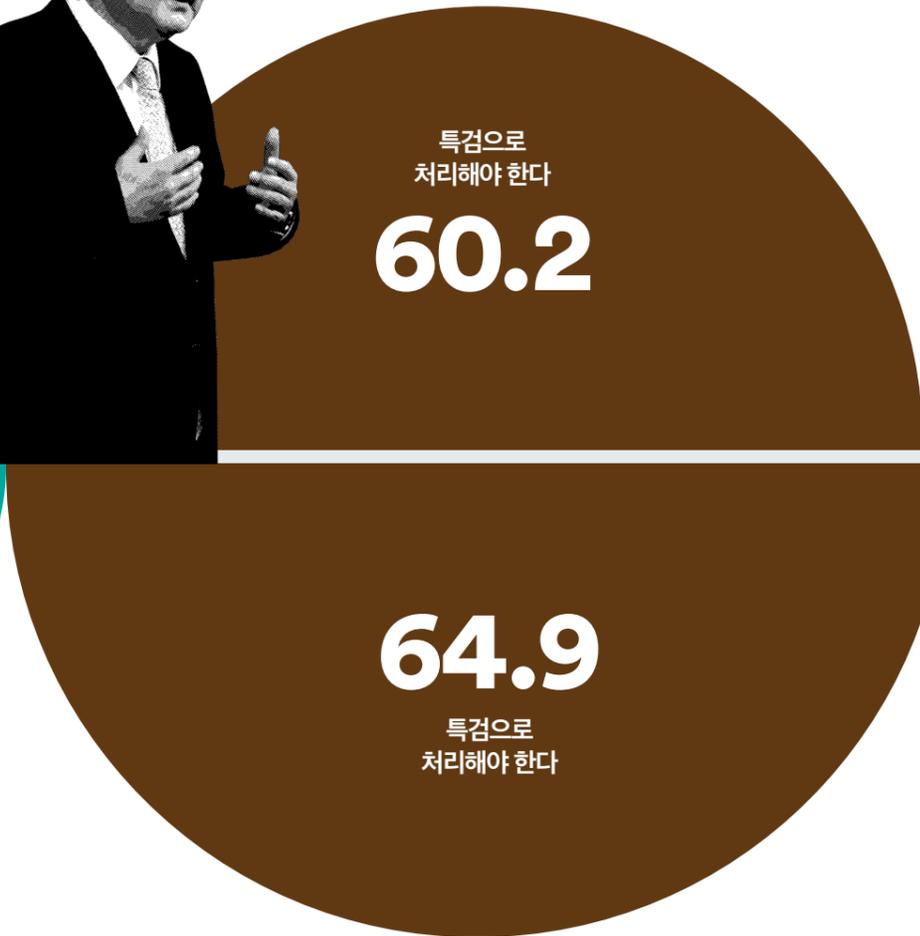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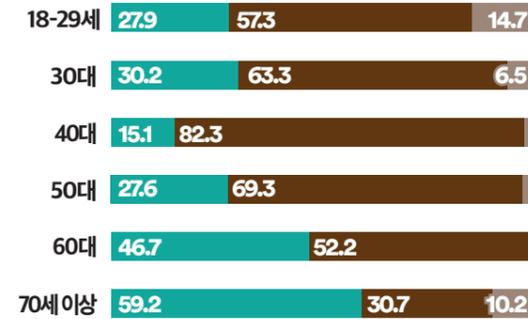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박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당국에서 아파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견 박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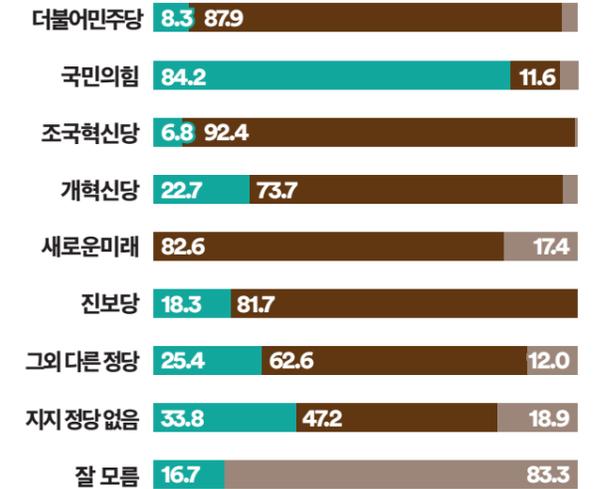
[2024. 5. 9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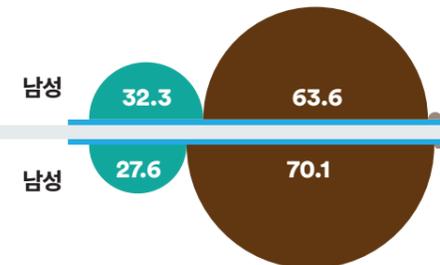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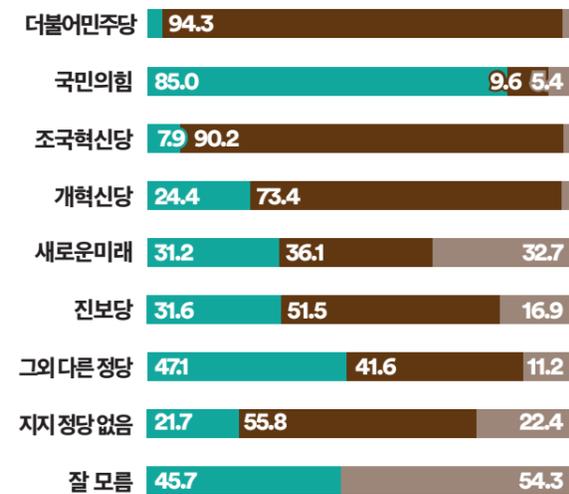
####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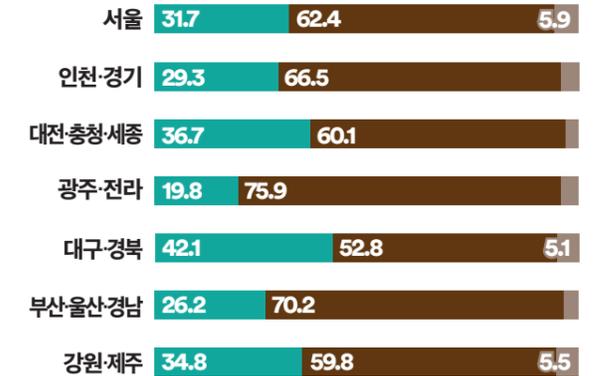
#### 성별



#### 정당지지도



#### 권역



‘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특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26.5%p, ARS 34.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및 50대이하 연령층(ARS 60대 포함)에서 ‘특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진보층·중도층은 ‘특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보수층은 ‘수사기관을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 우세

수사기관을 믿고 지켜봐야 한다    특검으로 처리해야 한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05\_03

---